국토최남단 마라도 방생법회
제주불교성지순례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

현대불교

山村한과
미리주문하세요!!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쇼핑몰 : www.sanchon.com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2월 12일 수요일(주간) 제408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충주 중앙탑돌이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충주시 중원 가금면에 소재한 탑평리 7층 석탑(국보 제6호)은 높이가 14.5m로 통일신라 석탑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 이 탑은 통일신라 원성왕(785~799년)이 호국의 상징으로 나라 중앙에 세웠다 하여 '중앙탑'으로 불린다.

이곳에서는 신라시대부터 탑돌이가 행해졌고 고려시대에도 성행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현재도 부처님오신날과 중추절에 중앙탑에서 충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송봉·지장정사 주지)가 탑돌이 행사를 열고 있다.

충주불교사암련은 최근 충청북도에 "중원 탑평리 7층석탑에서 행하고 있는 탑돌이 행사를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주불교사암련은 "현재 송봉스님이 중앙탑돌이 전수 경력 12년 기능보유자로 지정돼 있다"며 "중앙탑돌이 의례 또한 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로부터 부처님오신날 절 앞마당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밤새 행해진 탑돌이는 민속놀이의 측면이 강한 불교의례이다. 그래선지 불자를 막론하고 지역민들의 자연스런 참여가 이루어져 오래전부터 탑돌이는 지역축제형태로 이어져왔다.

충주 중앙탑돌이도 일반 주민들이 밤새 탑을 돌며 축원하는 민속문화로 발전돼 왔다. 특히 중앙탑돌이는 육바라밀 정진도에 따라 진행되며 포용과 조화, 중심적 발상, 복전(福田)의 확산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충북지역의 대표적 문화행사다.

현재 전국 각지의 탑돌이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주사암련의 중앙탑돌이 전통을 보전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 요청은 의미가 크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대불련과 대불청은 올해를 청년 불교 중흥의 원년으로 삼고 신입회원 확보와 조직 강화에 나선다.

90년대 이후 이들 단체들의 회원 감소와 지부 활동 둔화가 계속되면서, 청년불교는 사실상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대불련 | 본부포교팀 발족…3월 한달 학내 포교

대불청 | 고교불교학생회 창립 지원 포교 거점으로

청년불교단체 조직 강화 나선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다양한 방편으로 올 한해 불교계에 젊은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는 본부 조직을 포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회원 확보에 주력한다.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포교팀'을 신설한 대불련은 22일 신임 회장이 선출되는 대로 대학 캠퍼스 내에 불교 붐을 일으킨다는 복안이다. 이번 포교팀의 발족은 기존 '새내기 포교팀'이 3, 4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검토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인터넷 포교팀'을 새롭게 꾸려 인터넷 불교 동아리를 지원하고 온라인을 통해 불교를 알리는 데도 힘을 쏟는다.

대불련은 3월 한 달을 '학내포교 전진대회' 기간으로 선포해 대학가 포교를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신입생을 위한 초청 강연, 새내기 불자 환영 법회 등을 여는 한편, 포스터와 버튼, 홍보 리플렛, 대자보 등을 제작해 지회 지부 포교를 지원한다. 지회 지부가 법회나 수련회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포교책자도 올해 내에 발간한다.

대불련은 또 신행단체와 연계한 회원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3 불자들을 회원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예비대학생에게 편지 보내기, 사랑방 모임 개최 등을 통해 대불련을 알려 나갈 예정이다.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는 올해 청년 포교 강화, 회원교육 체계와 지방 조직 정비에 적극 나선다. 지난해 대불청 청년분과 1호인 홍익여고 불교학생회를 창립한 데 이어 제2, 제3의 불교학생회를 창립시켜 청년 포교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4월에는 '불청 알림이 운동'을 통해 회원 배가에 나서는 한편, 불교 교리 강좌 중심의 만해대학을 불교문화와 수행법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만해문화대학으로 확대 개편해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5개 권역별의 불청지도자 연수를 실시해 지회 지부 활동 활성화와 조직력을 강화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

선우논강, 25일 실상사서 토론

한국불교의 간화선과 남방불교의 위빠사나를 비교·검토하는 토론이 벌어진다.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에서 25일 오후 6시 열리는 제7회 선우논강(대표 철오)이 그 자리로,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를 주제로 논강이 진행된다.

남방불교의 수행법인 위빠사나의 체험과 보급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불자들의 수행방법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고 올바른 수행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자리다.

기조강연은 혜국스님(제주 남국선원장), 발제는 각묵스님(초기불전연구원), 대표토론은 정화스님 인경스님(보조사상연구원)이 각각 나선다. 문의 063) 636~3031.

김원우기자

◇흥교스님(종하스님 선대위원장·오른쪽)과 일면스님(법장스님 선대위원장·왼쪽)은 7일 지명스님(선거관리위원장·가운데)과 간담회를 가진 뒤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가야산골프장 백지화

대법원, 2001년 원고 패소판결 확정

10여년간 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온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 개발사업이 대법원에서 백지화됐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가야개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업시행기간 연장기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과 가야산국립공원내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자연훼손,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87년 시작된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은 상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인근 고령군 덕곡면 주민들이 반대하자 95년 문화체육부가 사업계획승인 취소결정을 내렸으며, 97년말 대법원의 해인골프장 사업 적법 판결에 따라 개발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1년 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을 불허, 가야개발이 다시 소송을 냈으나 2001년 패소한 바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불교계 첫 다도학교 개설

기본·지도자 과정 각 50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이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2년 과정의 불교다도학교를 개설한다.

동산불교대학은 6일 "2년 과정의 불교다도학교를 설립해 불교다인과 다인 포교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2년 과정의 기본 과정과 지도자 과정을 두고 각각 50명 씩 1백명의 신청을 받아 교육시킬 예정이다.

동산불교대는 기본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불교다도 포교사의 자격을 주고 지도자과정을 졸업한 자에게는 불교다도법사로 품수해 활동하게 할 방침이다. 입학식은 3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의 (02)732-1206

강유신 기자

종하·법장 두후보 공명선거 다짐

흥교·일면 선대위장, 지명 선관위장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한 종하, 법장 두 후보 측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두 후보 측은 또 선거운동기간 준수 등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종하스님 선거대책위원장 흥교스님, 법장스님 선거대책위원장 일면스님은 7일 종회사무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명스님과 가진 간담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두 후보 측은 또 중앙선관위가 요청한 △금품수수나 인신공격 등 비승가적 행위 금지 △후보등록(14~16일) 이후 종책자료집 배포 △후보 등록 후에도 현수막 부착 금지 △종책토론회는 선거기간(14~23일) 중 개최 △입후보자 기호 결정은 후보등록 순서로 결정(동시 접수때는 제비뽑기로 정함)하는 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원장 지명스님은 이날 "이번 선거를 청정승풍을 진작하고 불교의 사회적 책임수행과 포교의 장으로 만들자"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본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관련 보도에 있어 후보자 표기 순서는 기호가 결정될 때까지 세수를 기준, 종하스님(65세) 법장스님(62세) 순으로 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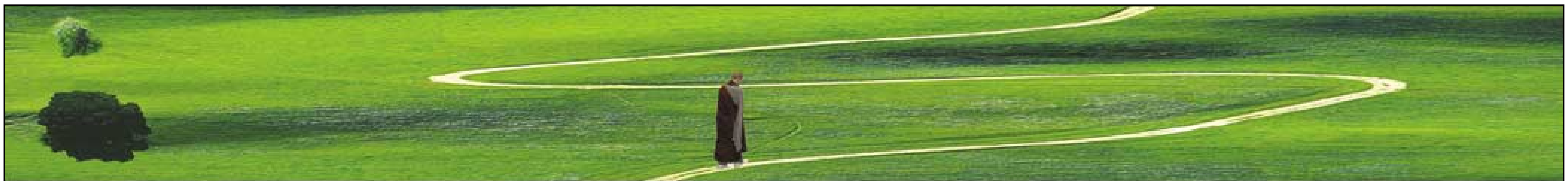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제8회 신행수기 시상식
2월 22일 (토)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수행의 길을 지켜드리는 두 "건강지킴이"

영양균형·유해산소예방에-반야정식·반야정명

지사 및 가맹점 모집
▶두 가지 기능의 반야정식, 반야정명을 하나의 포장에 담아 사용이 더욱 편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90여종의 미량 영양소를 매일 균형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영양균형은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유해산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유해산소는 지나친 산화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건강저해의 중요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영양균형에 반야정식

유해산소 예방에 반야정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용맹정진 하시는 수행인 ▶ 시험공부에 몰두하는 수험생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벤처 종사자 ▶ 미래에 도전하는 경영인

문의전화 : 02-547-7056

파마트